

승리절은 온 세상 만물의 영생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반대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승리자가 될 수 있어

많은 승리자가 나오는 승리절입니다

내일 승리절 날, 우리 제단식구들 절반이 승리자가 되는 날입니다.

궁금하게 생각하면 '궁금하게 생각하는 올란죄'에 해당이 됩니다. 승리자가 됐는데, '내가 승리자가 됐나?' 하고 궁금하게 생각하면 바로 승리자에서 떨어 집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 제단식구 절반에 해당하는 식구들이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순종 회의에 모이는 사람과, 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승리자가 되면서 그 나머지 적은 수, 우리제단 식구 가운데 가장 자유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승리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일의 승리절은 많은 승리자가 나오는 승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승리자가 됐나 안 됐나?' 하는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승리자가 됐다가도 안 됐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실에서 이 사람더러 '이긴자가 됐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준비하지 않고 이 사람 생각으로 '내가 이겼나요. 하나님이나 나를 이겼죠.' 즉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겼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 이겼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 이겨줬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또 이겼다가 되도록 하세요.

이긴자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이미 온 세상 만물이 해방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온 세상의 만물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단에, 하나님의 율법인 '네 사정이 내 사정이요, 내 사정이 네 사정이다.' 라는 것이 우리 제단의 자유율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고 했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22년 전에 이긴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긴자가 됐다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이긴자의 사정이 내 사정이 되므로 이것이 이긴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고, 누구든지 내 사정이 내 사정처럼 여기면 이긴자의 사정이 내 사정이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긴자가 되는 방법과 비결을 이미 22년 전부터 말을 했지만,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는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못 듣는 귀는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성경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성경말씀은 영적 말씀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악과도 영이요, 생명과일도 영인 고로 생명과일은 영생을 주는 영이요 선악과는 죽음을 주는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구세주 조희성님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요, 나라의 의식이 바로 마귀의 영이라는 것을 이미 22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선악과인 '나라는 의식'을 짓이기고 죽이는 생활을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죠? 반대생활이 마귀를 죽이는 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 반대생활을 함으로써 이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

의 마귀의 영을 짓이겨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긴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서 이슬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이 특별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 똑같이 이긴자가 되면 이슬성신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이슬성신

이 나올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한 다음에 이슬성신이 나오는 것을 알아야 하지, 발표하기도 전에 이슬성신이 찍혀 나왔다고 자기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떨어집니다. 지옥 갑니다.

이긴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셨으므로 이슬성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슬성신이 삼위일체의 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긴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이 좌정하는 거지, 이긴자가 아니면 이슬성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명과일이라는 것을 이긴자가 먹는다고 묵시록에 써어 있는 것입니다. '이긴자에게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긴자만이 생명과일인 이슬성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성신이 나오면 이슬성신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어서 전부 이긴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어야 이 길을 가는 것이고, 이 영생의 길은 이긴자가 안 되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긴자가 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반대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안 먹는 것입니다. 반대생활은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생활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생활입니다. 사람으로서 반대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라의 의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좌정되는 고로,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생각이 없어지고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만 움직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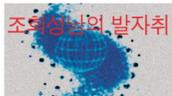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의 80%가 기쁨입니다. 기쁨! 왜 그런지 그렇게 기쁘요. 왜 그런지 그렇게 즐겁고, 왜 그런지 그렇게 늘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정도의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누가 봐도 웃는 얼굴이지, 항상 누가 봐도 상을 찌푸리는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세상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웃게 되어 있고, 누구를 만나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뻐서 웃습니다.

이 사람 군대장교 생활할 때에 장교들이 상관한테 야단맞으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오느냐? 야단맞고 한 대 얻어터졌으니까 가슴에서 주먹 같은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참으려니가 견딜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을 만나면 그게 그냥 눈 녹듯이 사그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단만 맞았다 하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장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참 이상하다.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는 주먹 같은 화가 가슴에서 치밀어서 상관을 두드려 패고 싶은데 당신만 만나면 그 마음이 언제 있었더라 하고 없어진다.'며 이상하다고 장교들이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장교생활을 할 때부터 마귀 죽이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0월 14일 말씀 중에서

항상 따라다니시고 초초로 바라보 이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고, 또 육으로 매일 뵈옵게 되면 갈게 무량한 눈물만 한없이 쏟아져 뿔라 말 씌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으로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통하였던 것이다.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생활

로만 알았기에 예수 사전을 옆에다 같이 나란히 걸어 놓았다. 그걸 보면 "어머니, 예수 사전을 떼세요."하고 발췌부터 예수가 주님이 아니고 영모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드리기도 했다.

한번은 인천 동암 간석동 전도관 전도사가 설교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해와 '박태선 장로님이 재림의 주님'이라는 설교를 하였더니 그곳에 참석한 교인들이 깜짝 놀라며 조 전도사가 이상한 말을 하는 마귀라고 한 적도 있었다.

소사신앙촌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보러 다녔다. 올라가면서 '주님이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아에 자고 깨는 것 주님이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거느리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는 찬송의 가사 내용과 일치된 마음을 가지면서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며 비탈길을 지나 지금의 오만제단에 올라갔다.

찬송을 걸음걸이에 맞춰 원래 곡조보다 빠른 템포로 간절하고 은혜스럽게 부르니 이 찬송소리를 들은 다른 교인이 감동이 되어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며 뒤에 따라오는데, 오만제단 꼭대기에 와서 보니 대어섯 명이나 따라왔다.

실제로 영모님께서 옆에서 늘 동행하고 계시는 데다 이 찬송을 부르니 감개무량한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만, 이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찬송하는 자는 병행하여 은혜 생활하는 것이 아니



영모님이 보고싶어 영모님이 단에 서시는 제단은 꼭 참석하였다 (이만제단 전경)

므로 이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다.

항상 따라다니시고 초초로 바라보 이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께 무엇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고, 또 육으로 매일 뵈옵게 되면 갈게무량한 눈물만 한없이 쏟아지지, 뿔라 말씌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영으로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통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루도 영모님을 보

을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사모가 되는데 영모님께서 육중에 들어가시게 되니, 그 하늘을 찌를 듯한 사모함은 말로 형언이 어려웠다. 밤마다 베갯잇을 눈물로 적셨던 것이다.

그렇게 보고 또 봐도 은혜 창과가 되시는 영모님이 두 번째 육중에 투옥되었을 때에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영모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초개 같이 여겨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서술해 보면, 당시의 민주당 정권을 뒤집어엎고 내 생명보다 천만 배 귀한 우리 영모님을 육중에서 구출하고 영모님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전도관 전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전국 전도관 대학회장 이종배 관장과 몇몇 청년 간부들 유재창, 민경춘, 박기호 등에게 제의하여 서울 원효로에 있는 이만제단에서 전국 전도관 대 집회를 열어 교인 일부 몇 천 명은 정해진 시간에 원효로에서 출발하게 하고, 또 일부 몇 천 명은 마포에서 출발하게 하기로 계획을 짜다. 또 몇 천 명은 어느 정류소에서 거기에 있는 승객 시민들과 합세하여 출발하고, 또 일부는 다른 버스정류소 여러 곳을 선정하여 출발토록 하는 한편 조철구를 중심으로 하여 300명의 특별결사대를 조직, 행정부와 육본 등을 담당하고, 각 경찰서는 헌병대가 점령하도록 하였다. 수류탄을 비롯한 탄약 등은 이 사람의 군(軍)동기생이 인양 탄약고에 있으므로 연락하여 조달키로 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행동에 옮기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런 거사 계획을 영모님 사모님과 형님인 박태국 장로님께 아뢰고 협조를 구했으나 극구 반대하

였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영모님을 두 번씩이나 육중에 집어넣은 만행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 썩은 정부를 뒤집어엎어 버리겠습니다."고 강경하게 나가니 그들은 급기야 용산 경찰서에 신고해버렸다. 그리하여 거사가 들뜸이 나 이 사람이 주범으로 지명수배를 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영어(靈語)의 몸으로 계신 영모님께서 육중 발령을 내려 온양전도관에서 시무하며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 후 6개월 뒤에 실제로 5.16군사 혁명이 일어났다. 혁명이 일어나니 용산경찰서 형사들이 이 사람이 혁명 주체 세력인 줄 알고 출세에 출을 대리고 찾아와 점심을 같이 하자 는 등 갖은 아부를 하려 하기에 나는 혁명 주체 세력이 아니라고 해명한 적도 있었다.

자유당 정권 당시, 부통령 이기붕과 부인 박마리아가 영모님을 죽이려고 육중에 집어넣고는 자유당 정권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그들은 그때 영모님을 육중에 있는 깊은 풍통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었다. 그런데 다행히 풍통 안에 통나무 토막이 있어 그걸 붙들고 간신이 살아나신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영모님을 체포한 강 차장검사가 심정기비로 갑자기 죽고, 이기붕과 박마리아는 아들이 쓴 총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민주당 정권 때 다시 영모님을 두 번째 투옥시킨 정부가 몇 개월 만에 무너지는 참극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 당시 혁명부장 김창룡이라는 자가 영모님을 직접 구속했는데 구속한 다음날 이유 없이 자살을 해버렸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감람나무를 해고자 하는 자 반드시 징부를 당하리라.'고 한 대로 하늘의 사람을 건드린 자들의 말로는 이와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다.*